



“Online Information” 참관과 영국,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다녀와서



박정미*

이 글은 “Online information 2004”에 대한 참관기로서 근 1년전의 얘기들이지만 “Online information 전시회”의 중요성이나 규모에 비해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많은 사서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썼다. ■ 필주 자

● 프롤로그

작년 11월 29일(월)부터 12월 5일(일)까지 총 5박7일 동안 매년 12월초 런던에서 개최되는 “Online Information”을 참관하였다.

이 전시회는 매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주관하여 참관단을 모집하며, 작년에는 7개 기관에서 총 15명이 참관하였다. 참관 기관은 강북삼성병원(1명), 아주대학교(1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3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4명), DPC(3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KISTEC:2명), (주)존앤존(1명)이었다.

이렇게 내가 전세계 각국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전시회에 참관단으로 다녀왔던 이유를 일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린다.

작년 7월말에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을 주관하는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가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도서관마케팅(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실천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강북삼성병원과 아주대학교 2개 기관이 “ESLI Leadership Award”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 부상으로 “Online Information”에 가계된 것이다.

* 강북삼성병원의학정보실 사서, kbmedlib@dreamwi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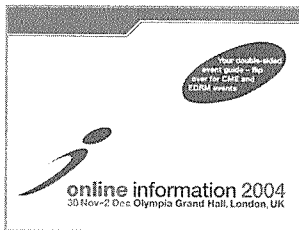
● 런던의 3박4일 스케치

11월 29일(월) 오후 4시 10분, 우리들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다음날엔 늦가을 낙엽이 온 숲을 덮고 있는 하이드파크에서 단체사진을 찍으며 문화의 도시 런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리하여, 귀족과 서민이 공존하는 도시인 런던의 국회의사당, 웨스터민스터사원, 버킹검궁, 타워브릿지 등을 관광하였다.

그 후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고학 및 민속학 수집품 들을 소장한 대영박물관에도 다녀왔다. 대영박물관은 런던의 블롬스버리 지역에 있으며, 2000년 11월 한국관이 신설되어 구석기 유물부터 청자·백자 등 조선 후기 미술품 250여 점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래 여기에 있었던 1881년 자연사 소장품들은 사우스켄싱턴에 신축한 자연사박물관으로 이전되었고 이곳에 있었던 도서관 또한 몇몇 주요 기관들의 장서를 합하여 지금의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으로 독립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 박물관은 일반 열람실만 개방하고 있으며, 열람실 내부는 벽면을 장식한 일부 장서와 함께 웅장하면서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었다.

● 전시회를 참관하며



(Online Information 로고)

12월 1일(수),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Online Information"에 참석하였다. 이 전시회는 11월 30일(화) 부터 12월 2일(목)까지 사흘동안 영국 런던 올림피아 전시장 그랜드홀과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회 규모는 유럽 최대이며, 230여개 참가사의 1,000 여개 이상의 콘텐츠 자원과 정보관리 솔루션이 전시되었고, 참가 인원수는 약 11,000명 이었다.

이 전시회의 장점은 현장에서 한눈으로 생생한 세계의 우수한 정보·콘텐츠 산업의 최신 기술 및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신제품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참가 대상은 정보전문가·마케팅전문가·시스템담당자·기업의 경영자들이다. 전시회 입장료는 사전 등록시 무료이지만 현장등록은 15파운드를 지불해야 함으로 향후 참관자들은 참고하면 좋겠다. 그리고 영국국립도서관의(BL)의 여러가지 DB 전시도 볼 만 하였다. 특히, 그곳에서 시연용 전자책을 넘기고 있는데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DB 홍보를 하는 영국국립도서관 직원의 모습도 인상에 남았다.

나는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각국의 온라인 정보 산업의 경향, 제품,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가슴 뿌듯하였다. 아울러 IT 산업의 강국인 우리의 국립도서관도 영국국립도서관처럼 더욱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전세계에 많이 배포하였으면 한다.

●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 가다.

12월 2일(목) 오전에는 대학교 시절 교수님 한테만 들었던 국가 문화사업을 대표하는 영국국립도서관(<http://www.bl.un>)에 다녀왔다. 영국국립도서관은 1973년 7월 영국 도서관법에 따라 대영박물관부속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과학기술대출도서관, 영국국립 서지부, 특허청도서관, 과학기술정보처 등 기존의 주요 도서관을 통합하여 창설하였다.

하지만 참관 일정상 영국국립도서관은 견학 예약이 되어있지 않아 도서관 내부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내부는 볼 수가 없었지만, 외부에서 바라본 목조를 사용한 견고한 건축양식은 역시나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